

엄동설한 갈곳없는 외국인 노숙자

노숙자 쉼터 “내국인만 수용”… 인권 광주 무색

경기불황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혹한 속에서 거리를 배회하는 외국인 노숙인이 늘고 있지만 내국인과 같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외국인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파악된 광주지역 외국인 노숙인은 5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광산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어 수십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대부분은 조선족이나 고려인 등 세외동포로 50·60대의 고령인 데다 알코올 중독 등 질환을 갖고

있어 일자리를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이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자 “차라리 폐지를 줍는 것이 낫다”며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에 따라 겨울철 동사 사고나 절도, 폭행 등 범죄 발생과 사건 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노숙인 보호와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단체의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위탁을 통해 노숙인 쉼터 1곳을 운영

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 경찰이나 보호 단체가 수용을 의뢰해도 시설상의 문제나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 혼란이다.

지난해 12월 초 경찰은 영광권의 날씨에 걸거리에 쓰러져 있던 중국 조선족 출신 오모(여·63)씨를 발견, 남구청 복지팀에 신병을 인계했다.

구청 관계자는 노숙자 쉼터에 오씨의 수용을 의뢰했으나 내국인이 아니라

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오씨는 이후 광산구의 한 외국인 쉼터에 머물다,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제퇴거 위기에 처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광주 지역에

15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노숙인 쉼터를 통해 한해 40여명의 재활을 돋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겉도는 성범죄 예방대책

광주 검거율 높지만 매년 늘어

광주 지역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다.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검거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을 있는 예방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 혼란이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은 862건으로 이 가운데 788건(91.4%)은 피의자가 검거됐고 나머지 74건은 아직 범인이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청의 지난 3년간 성범죄는 지속적인 증가세다. ▲2009년 525건이 발생한 데 이어 ▲2010년 586건 ▲2011년 724건 등 매년 발생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발찌·신상공개·화학적 거세등의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외에 유흥업소, 불법 노래방 등 유해업

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범인 검거율이 경찰의 치안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준이라는 점에서 그나마 검거율은 지난해 91.4%로 지난 2011년(81%)에 비해 크게 늘어난 점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광주청의 성범죄 검거율은 전국 16개 지방청의 평균 검거율(84.5%)보다 높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살인·강도·절도·강간 등 4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중에서 인천에 이어 2위의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3위로 나타났다.

/김지기자 dok2000@kwangju.co.kr



도시락 위생 점검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9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시락 급식업체를 찾아 위생과 영양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불륜 들켜 수치심에 자살…보험금 줘라”

서울지법 이색 판결

불륜 현장을 남편에게 들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부(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이 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고인이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현행 상법은 보험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겼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9일 광주시 북구 양산동의 한 도시락 급식업체를 찾아 위생과 영양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여행 문의 1577-6511

롯데제이티비

여행 문의 1577-6511

이달의 우수대리점
롯데마트 월드컵점 062-523-4300

대리점을 모집합니다.
문의 전화 062) 228-6644

무안출발! 북경
1/6 롯데홈쇼핑 방영상품

북경/만리장성+서커스* 4/5일

399,000 원부터

▶ 1월 12일 ~ 3월 15일 까지

● 월북 항공료, 북경최고의 음선 포함, 북경서커스 관람
● 만리장성 케이블카, 인력거 투어, 부국어제서비스 제공
● 디너 특식 (사선 요리, 오리 구이, 송이버섯탕, 샤프브사)
한식·양식·교자·제과 제공
● 벌미지 체험

무안출발! 상해
특급호텔/5대특식

상해/항주 +서호의 밤* 4일

349,000 원부터

▶ 추천

● 매주 수요일 출발
● 월북 항공료, 특급호텔 숙박
● 6대특식 제공
● 상해서커스, 서호유람 공연관람
● 주각 화랑 벚꽃이 ● 벌미지 체험

● 무안출발! 상해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호남권출발! 일본
동경/후지산 실속투어 상품

동경/후지산* 4일

899,000 원

▶ 1/10,13,19,26~

● 긴해 → 나리와 항복항공료 포함
● 동경 신도청타워, 신주쿠 번화가 관광
● 미사부 관광 및 유람선 순회
● 호남권에서 전세버스편 국내이동부터 가이드 풍행

● 호남권 출발 일본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무안출발! 방콕
무안출발 겨울전세기 상품

태국/방콕/파타야* 5일

849,000 원부터
899,000 원부터

▶ 1월 10일 ~ 2월 25일 까지

● 무안 → 방콕 항공료, 호텔, 입장료 포함, 일기자수 관광
● 일정상의 식사, 코끼리트레킹
● 전용안마 1시간 포함, 특식 제공

● 무안출발 방콕 전상품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럽
서유럽인기상품

동남아
어메이징 타이랜드로 초대!!

기죽여행하고 푸켓 코아이섬 스노클링 5일/6일

899,000 원부터 ▶ 1/10,11,12,13,14,16,17,18,19,20,21,23~

● 특급호텔, 쇼핑, 1박자유일정, 코아이섬 스노클링, 앤솔리드시내리투어

방콕 카보니아 파티아 549,000 원부터 ▶ 1/14,21~

● 흥국카드 10% 할인 혜택

▶ 1/10,11,12,13,15,16~

● 흥국카드 10% 할인 혜택

● 흥국카드 10% 할인 혜택